

〈書 評〉

崔鍾庫 著 『韓國法思想史』

許 興 植*

이 책의 著者 崔鍾庫教授는 法과 宗教·法史와 法思想에 대해서 일찍부터 무거운 研究著書를 學界에 내놓아 이 分野 學問의 발전에 獨步的인 위치에 있는 분이다. 우리나라의 학문의 대부분은 既存의 成果가 두텁게 쌓여있지 못한 형편이므로 國史學이나 國語國文學의 약간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멀리 西洋이나 가까이 있는 日本의 研究結果를 吸收하여 再整理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최근에 이르러 意慾과 勤勉性을 지닌 40대의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그동안 흡수한 동서양의 지식을 소개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토대로 特殊史를 構築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書評者는 저자와 같은 또래의 國史學徒로서 불만한 연구는 남기지 못했으나, 최고수의 근면하고 빈틈없는 저술이 계속 출간될 때마다 국사와 관련된 특수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國學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先進의 각분야를 涉獵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言語와 生活方式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만, 學位를 마치면 氣盡脈盡하여 애써 닦은 各分野를 우리의 傳統學問과 接木시켜 定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고수는 이러한 通弊를 일찌감치 벗어나 버리고 縱橫無盡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 慶北大學校 教授

한국법사상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特殊한 主題에 대해서는 論文과 著書가 있었으나 종합적이고 폭넓게 읽을 수 있는 概說書가 나올 만큼 蓄積되지 못하였었다. 저자가 序文에서 明示하였듯이 이 책은 학생들에게는 講座에 대한 對答이고 學者들에게는 包括的인 案內書로서 이 分野에서는 最初의 成果라 하겠다. 저자는 기왕의 단편적 연구성과를 빠짐없이 수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독창적인 論문을 합쳐서 본서의 짜임새를 갖추기 위한 心血을 쏟아 넣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開拓者가 이룩한 창조적 論문은 개설서로 간행된 경우에 자칫 看過되기 쉽다.

저자는 한국의 法思想史를 10 장으로 짜고 있다. 저자가 冊題의 內容을 어떤 構造의 틀로서 포괄시키고 체계화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10 장의 目錄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 序 章 ; 韓國法思想史의 意義
- 제 1 장 ; 韓國法思想史의 源流
- 제 2 장 ; 高麗時代의 法思想
- 제 3 장 ; 朝鮮前期의 法思想
- 제 4 장 ; 朝鮮後期の 法思想
- 제 5 장 ; 開化期의 法思想
- 제 6 장 ; 日帝時期의 韓國法思想
- 제 7 장 ; 大韓民國의 法思想
- 제 8 장 ; 北韓의 法思想
- 제 9 장 ; 外國에서의 韓國法思想研究

위와 같이 序章을 제외한 本論의 아홉 부문에서 제 1 장부터 7 장까지는 우리나라의 법사상을 古代로부터 現在까지를 細分하여 서술하였으므로 본서의 核心이라고 하겠다. 서장은 표현 그대로 본서가 다루는 主題에 대한 定義와 隣接學問과의 相關성과 差異點을 밝히고, 아울러 研究現況, 方法, 그리고 課題 등을 提示하고 있다. 서장에서는 東西洋의 該博한 知識을 동원하여 이 분야의 開拓者답게 학문에서의 位相을 浮刻시키면서 基礎를 確定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眼目이야말로 國學으로 기초를 다지고 후에 特殊史로 擴大한 이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缺點이지만, 본서

의 저자는 이를 말끔하게 걷어버리고 새로운 학문의 盤石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1장에서 제 7장까지 우리나라 法思想史의 起源과 發展, 그리고 變化를 時代區分上 一般史의 흐름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저자가 斷片的으로 발표했던 논문이 간추려져서 틈틈마다 채워져 있는데, 이는 저자가 그동안 본서의 저술을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계획하였었던가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현재의 연구성과가 부족함을 솔직히 밝힘으로써 독자와 저자가 함께 메꿔가야할 課題로 제시하면서 이 分野의 脆弱點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연구할 예정이거나 연구성과가 나타나면 새로 吸收하여 補充하겠다는 개척자다운 謙虛한 자세라 하겠다.

끝으로 제 8장과 제 9장은 본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제 8장은 우리의 아픈 分身인 北韓의 법사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우리 學界에서 試圖조차 못했으나 저자는 果敢하게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여 概要를 제시하고 있다. 原資料의 중요 부분을 紹介하고 消化되지 못한 느낌은 있으나, 이나마 均衡있는 批判과 思考을 위하여 제공된 점은 최근의 우리가 幼兒期的 思考를 벗어나려는 時代的 思潮을 先導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저자는 저술에 있어서 全體의 均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讀者에게 말해 주고 있다. 제 9장은 外國에서 연구되고 있는 韓國의 법사상사를 다룬 것인데, 저자는 國內에서 뿐아니라 國外에서도 研究와 著述을 계속한 該博한 지식을 폭넓게 이용하면서, 독자의 焦點을 밖에서 안으로 바꿔서 다시 眺望시켜 준다.

이 책은 核心을 이루는 각시대의 법사상에 대해서 일반사와 연결지우고 개괄적으로 정리한 다음, 各章의 後半마다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보여 준 인물의 법사상을 좀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와 같은 서술은 學生과 專攻者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또한 小項目마다 끝에는 참고한 論文과 著述을 一目瞭然하게 밝혀 놓았으며, 모든 연구자에게 간편하고도 친절한 案內가 된다. 이는 서양의 개설서에서 開發하여 사용한 방법이고, 국사학에서는 李基白教授의 韓國

史新論에서 活用하여 학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본서를 읽고 특히 제 4 장 이하에서 저자의 번득이는 知慧를 느낄 수 있었다. 近代와 現代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저술에서 저자가 蘊蓄해 온 知的 蓄積이 유감없이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가까우면서도 어둡던 이 시기의 여러 사실과 苦惱를 잘 전달시켜 주었다. 서양법사상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고 정착되는 과정은 개설서를 벗어나 깊이 있는 논문과 다름없지만 簡明함을 잃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만족한 저술에 대해서 좀더 주문하고 싶은 요구를 첨가해서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고 싶은 독자로서 욕심을 더 하고 싶다.

이 책은 인접한 一般史와 잘 연결되고 時代區分도 거의 一致한다. 그렇지만 법사상사의 시대구분이 일반사와 좀 다른 용어로 설정하고 차이있는 일면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을 볼 수 없음이 오히려 아쉽다. 특수사는 그 나름대로 보는 틀이 다르므로 일반사와 다를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음은 국사학도로서 오히려 아쉽게 여겨진다.

특수사에서 人物은 매우 중요하고 저자도 각 항목의 후반에 이를 실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法定의 節次, 一般官人和 法專門官人과의 관계, 법을 執行한 機關과 構成員, 法教育의 내용과 擔當者의 選拔方法, 法典의 編纂 등을 아울러 취급하였으면 좀더 우리나라 법사상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법은 인간의 질서를 위해서 인간이 制定하지만 이것의 막강한 힘을 휘둘러 逆機能을 나타낼까 해서 東洋의 傳統社會에서는 법의 執行人이나 法專門官人의 지위가 높지 않았다. 이는 법을 經視해서가 아니라 법의 惡用을 막을 수 있는 스스로의 制御裝置도 念頭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

법은 律法이나 法典에 集積된 成文法의 형태로 동아시아에 존재해 왔고,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4세기부터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문법이 導入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의 慣習法과 어떤 脈絡이 있는 것인가, 도입되었더라도 계승된 관습법과 어느 정도 折衷과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疑問이 남는다. 저자는 神話時代의 固有法과 慣習法을 綜合하면서 법의 源流를 밝히는 데서 출발함으로써 두가

지 觀點의 缺點을 克服하였으나 三國과 그 以後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導入에 대해서 比重을 嵩으로써 社會에 蓄積되어온 傳統法制와 새로 受容된 법사상의 折衷과 融合過程에서 土着化하고 變形된 모습이 未洽하지 않았나 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사상사 뿐아니라 國史學은 물론 모든 분야의 特殊史에서 극복해야 될 어려운 課題이다.

위와 같은 몇가지 讀者로서의 요구는 우리 학계가 극복할 공통적 과제이며, 누구보다 본서의 저자에게서 해결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열거해 보았다. 이 책은 우리의 주변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강좌는 설치되었으면서도 마땅한 저서가 없는 학계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記念碑로서의 의미가 있다. 저자의 해박하고도 짜임새있는 지식의 축적을 학계에 쏟아 아담한 결실이 격동하는 80년대 마지막 가을의 독서계를 곱게 물들이고 있음을 고맙게 새겨 두고자 한다. (1989.10.9)
(서울대학교 出版部, 1989, 446면)